

아침부터 구매 행렬...백화점·아웃렛 '디저트'에 눈뜨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푸드 에비뉴' 1~4월 베이커리 매출 15.9% 증가 롯데 광주수원점 '동명제과' 입점·광주신세계 '키친205' 등 인기

"배는 불러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죠." 디저트에 대한 한국인의 입맛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지역빵집과 협업하는 유통매장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연초 지하 1층 '푸드 에비뉴'에 디저트 매장을 강화하면서 1월1일~4월6일 베이커리(제과) 매출은 1년 전보다 15.9%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 1월 지역 브런치 카페의 시초로 꼽히는 카페 '아펠코'와 상무팍죽 등을 들이

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부산 해운대 달인'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영국식 빵 스퀘어 매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롯데수원점 광주수원점에는 동네빵집 '동명제과'가 230㎡(70평) 규모로 8일 입점한다. 동명제과는 지난 2018년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출발한 '동명식빵'이 모태다. 대표 상품인 식빵이 입소문을 타면서 해남 '동명제과'와 광주 서구 마북동 '마북동빵가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롯데아웃렛에 마련된 동명제과 매장에서는 동명식빵과 해남 동명제과, 마북동빵가게의 모든 대표(시그니처) 상품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탕종 식빵과 보늬밤·블루베리·마약옥수수·바질토마토 식빵 등 식빵 종류만 10여 가지다. 해남 한입 고구마빵과 앙버터 스퀘어, 에그 샌드위치도 주력 상품이다. 동명제과는 신선한 재료만 고집해 매일 오전 11시부터 매 시간마다 갓 구운 식빵을 내놓고 있다. 반죽을 24시간 저온 숙성시키는 '탕종 공방'은 구매한 지 3~4일이 지나도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는 비법으로 알려져 있다. 동명제과는 입점 기념으로 8~11일 기준 3900원



8일 롯데아웃렛 광주수원점에 문을 여는 지역 맛집 '동명제과' 직원들이 대표 상품인 탕종 식빵과 해남 한입 고구마빵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인 탕종 식빵을 1개당 1000원에 하루 200개 한정 판매한다. 이중열 점장은 "롯데아웃렛 광주수원점은 소셜

미디어 맛집으로 알려진 동명동 동명식빵과 해남·마북동 매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검증하며 입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도 디저트 매장 보강에 적극적이다. 광주신세계는 이달 2일과 3일 지역 맛집으로 알려진 광주 '육각커피'와 함평 '키친205'를 본관 지하 1층 푸드플라자에 잇따라 문을 열었다. 함평 '키친205'는 주말이면 줄 서서 먹는 '디저트 성지'로 소문이 났다. 이 브랜드는 최근 서울지역 백화점에도 진출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에서 지난 2012년 4월 출발한 '키친205'는 생딸기 케이크 등 디저트로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뜨겁다. 광주신세계에서는 대표 상품인 '딸기발 케이크 1호'와 '딸기발 케이크 미니' 두 종류를 만날 수 있다. '육각커피'는 지난 2018년부터 남구 양림동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커피 맛집이다. 이 브랜드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광주 외식업체 바리 F&B가만 들어왔다. 대표 상품으로는 코코넛 커피와 아메리카노가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9월 같은 층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기가 뜨거운 '크로플' 맛집을 들이기도 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6종 크로플을 맛보기 위해 개장하자마자 줄을 잇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키친205'의 '딸기발 케이크'.



"공상 불승인 소방관 도와요" <광주신세계는 오는 5월9일까지 본관 1층과 지하 1층 연결 통로 등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장비를 재활용해 의류·가구 등을 만든 '119REO' 기획 판매전을 진행한다. 판매 수익금의 50%는 공상 불승인 소방관을 지원하는 데 쓰여진다. <광주신세계 제공>

봄 나들이 필수품 간편식 광주 이마트 매출 33% ↑

간편가정식은 139% 증가

광주·전남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나들이를 위한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다. 7일 광주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들 매장의 3월 1일~4월5일 간편식(델리) 매출은 1년 전보다 32.8% 증가했다. 간편가정식 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138.7% 늘었고, 초밥류 54.4%, 구이류는 41.9% 증가했다. 초밥류는 이마트에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먹거리다.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송어초밥'과 '대왕 새우초밥' 등을 들이며 차별화된 상품을 확대했다. 구이류 중 인기상품은 '바베큐(BBQ) 혼제통삼겹살'이다. 이마트는 혼제통삼겹살 인기를 시작으로 기존 '혼제 오리'와 '혼제 닭다리' 이외에 새로운 혼제 메뉴를 잇따라 개발해왔다. 1인 가구에서는 부대찌개, 순두부찌개, 샤브샤브 등 국물 요리를 간편히 즐길 수 있는 밀키트(Meal Kit)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키친델리 클럽(회원제)을 운영하고, 각종 밀키트 인기 상품 할인전을 벌일 계획이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나들이객이 늘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가정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0시간 동안 호텔에서 '호캉스' 즐겨요"

홀리데이 인 광주 개관 10주년 '10아우어스 패키지' 선보여

광주 4성급 호텔이 숙박을 하지 않는 대실형 상품을 내놓았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객실을 10시간 동안 8만원(세금·봉사료 포함)에 이용할 수 있는 '10아우어스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입실 시간은 정오(12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이 상품 고객은 실내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다. 무제한 생맥주나 조각 케이크(2개)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가격은 10만원이다. 이 상품들은 오는 30일까지 평일(일·목) 이용할 수 있다. 또 호텔 내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때 10% 상당을 레스토랑 할인권으로 돌려주는 '텐틴 이벤트'도 진행한다. 양문선 총지배인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사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모든 영역의 방역과 위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홀리데이 인 광주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개관 10주년 프로모션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igwangju.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마트 '노르웨이 자반 고등어' 40% 할인 판매

오늘부터 14일까지 4마리 5980원

롯데마트는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8~14일 노르웨이 자반 고등어를 40% 할인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등어 한 손(2마리)에 4900원대였지만, 행사 기간에는 두 손(4마리)에 5980원에 살 수 있다. 고등어는 롯데마트에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전체 생선 매출 가운데 2위에 이어 2위를 유지하

고 있다. 노르웨이 고등어는 국내 고등어 시장 절반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최근 들어서는 생물 고등어는 물론 냉동 고등어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어 어획량은 전년 대비 25% 가량 감소했다. 냉동 고등어 가격(10kg)은 지난해 4월 2만2407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4월에는 5만3282원으로 1년 동안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